



One-Body One-Spirit MAGAZINE | www.obos.or.kr

한마음한몸 | 2012년 여름 | 열네번째이야기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14
SUMMER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창립 24주년

한마음한몸 약속

여는 글

희망을 싹틔우는 마음으로
생명을 수호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전파하는 마음으로

가난하고 배고픔에 지친
이웃들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혜자와 후원자,
사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원사업과 나눔운동을 통해
소중한 친구처럼, 든든한 가족처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마음한몸이 되면
세상은 웃음꽃 향기로
가득해집니다.





표지이야기

생명 나눔의 캠페인
한국 최초로 열린
'생명대행진 2012'

한 마음 한 몸

2012년 여름호

열네 번째 이야기

www.obos.or.kr



여는 글

02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창립 24주년 - 한마음한몸 약속

희망의 씨앗

04

나눌 수 있는 생명이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06

400번째 위대한 나눔 나눌수록 기쁨이 배가 되는

생애첫기부

Special Story

08

‘생명 사랑 나눔 운동’

월드 On Air

10

Thanks to OBOS

현장 속으로

12

‘지구시민서포터즈’를 소개합니다

현장에서 온 편지

14

제 50차 세계성체대회 참여 후기

공간, 나누는 세상

18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

생애첫기부

20

OBOS NEWS

22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마음한몸 발행일 2012년 7월 31일 통권 제14호

발행인 김용태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13호

편집디자인 굿모닝컴 글·사진 커뮤니케이션팀 출력·인쇄 프로아트

주소변경 및 문의 후원관리팀 | 02.774.3488 | obos@catholic.or.kr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한마음한몸”은 후원자 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됩니다.

한마음한몸의 내용은 인터넷(<http://www.obos.or.kr>)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나눌 수 있는 생명이기에 더욱 소중합니다

제대혈은 탯줄에 다량 함유하고 있는 조혈모세포로 백혈병·재생 불량성 빈혈과 같은 혈액질환의 치료와 소아암, 유방암, 고환암, 폐암 등 각종 암 등의 치료에 쓰여지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1997년 국내 최초로 기증제대혈은행을 가톨릭의과대학 산하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에서 설립하였습니다. 은행의 목적은 폐기되는 제대혈(탯줄혈액)을 조혈모세포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증받아 보관하였다가 이식용으로 사용하고, 이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제대혈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성체줄기세포연구용으로 제공하고자 보관하는 것입니다.

04

한마음
한몸



제대혈(조혈모세포)기증을 통한 생명살리기

현재 약 4000여 명의 백혈병 등 악성 혈액종양 환자들이 조혈모세포이식을 애타게 기다리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환자들이 조혈모세포이식을 통해서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혈모세포가 다량 포함되어 있는 제대혈기증을 통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제대혈 기증 및 보관절차

- 1 기증상담 및 신청을 원하시면 한마음한몸운동본부(02-3789-3488)로 연락을 주세요.
- 2 제대혈 기증을 신청하면 제대혈 채혈키트를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02-590-1149, 1150)에서 원하시는 주소로 보내드립니다.
- 3 제대혈 채혈키트를 수령하시면
 - 참가동의서는 직접 작성하셔서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으로 보내 주시고
 - 주치의에게 제대혈 기증의사를 밝히신 후 출산 전 채혈키트를 전달해 주세요.
- 4 아이를 분만하면 제대혈 채혈(90~110ml)을 주치의 선생님께서 채혈합니다.
- 5 채취된 제대혈은 출산 후 곧바로 가족 등이 보령아이맘셀뱅크(080-0202-015, 02-740-4044)로 전화를 주시면 24시간 이내에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으로 운송합니다.
- 6 운송된 제대혈은 제대혈 분리 및 검사를 통하여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에서 냉동 보관합니다.



제대혈 기증 연락처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100-809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13호
TEL. 02)3789-3488 FAX. 02)776-7879
www.obos.or.kr
-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137-701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가톨릭대학교의과대학
TEL. 02)2258-7458 www.chscb.com



제대혈기증, 생애첫기부를 한 준서, 윤서 가족

안녕하세요. 쌍둥이 준서·윤서 아빠 최승원(안드레아), 엄마 김희정(아네스)입니다. 저희는 2009년 5월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임신 중 어느 날 제대혈 기증에 대한 안내 부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대혈 기증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도 모르거나 무관심 때문에 제대혈이 그대로 버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제대혈 수거 키트를 받아 집에 돌아왔고 그 키트가 나중에 어떤 생명을 지켜주거나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기뻐했습니다. 2011년 5월, 기다리던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미리 챙겨간 기증 키트는 의사 선생님에게 잘 전달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난 후 아기들이 아파서 몇 번 병원에 가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기처럼 가벼운 질병으로 아픈 아기들도 있지만 불치병이나 난치병으로 아픈 아기들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히 사는 것이 어떤 아픈 이웃에게는 간절히 바라는 기적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픈 환아들이 질병을 이기고 행복한 일상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며 쌍둥이 둘에 맞추어 생애첫기부(2011년 8월)도 했습니다. 부모가 된 이후로 이렇게 행복하고 뿌듯한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선종하신 지 3주년입니다. 추기경님의 사랑의 말씀이 이제 그분을 따라 밥이 되는 많은 분들의 실천을 통해 명동에서 전국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추기경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 안에 계속 더 커져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 쌍둥이 최준서·윤서 아빠 최승원(안드레아), 엄마 김희정(아네스) 드림

※ 세상에서 가장 귀한 ‘생명’을 살리는 나눔을 실천해주신 최승원, 김희정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00번째 위대한 나눔 나눌수록 기쁨이 배가 되는 생애첫기부

드디어 생애첫기부에 동참하는 400번째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본부는 지난 4/14(토), 오전 11시 30분, 가톨릭회관 4층 한마음 한몸운동본부 사무국에서 **400번째로 생애첫기부 캠페인에 참여한 김지안(세례명 헬레나·6세) 준영(세례명 다니엘·3세)의 가족**에게 기부증서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생애첫기부에 동참한 아기 기부자를 위해 케이크를 놓고 조출한 축하파티도 열었습니다.





이 날 생애첫기부 400번째 가족은 지안 양과 준영 군의 이름으로 각각 오백만 원씩, 총 천만 원을 백혈병과 난치병으로 투병중인 어린이들과 지구촌 빈곤 청소년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어머니 정소영(세례명 크리스티나, 37세 송파구 방이동 거주)씨는 “성당에서 주보를 통해 생애첫기부를 알게 됐어요. 당시 생일을 맞았던 큰 아이 꿈이 의사라서 큰 아이에게 기부를 하는 것에 대해 물었더니 ‘아픈 친구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기부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 하지만,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갖고 있는 것을 아프고 힘든 친구들과 나눠야 한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아이들이 오늘의 경험을 통해 훗날 스스로 기부를 실천해나가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김경호(세례명 아우구스티노, 36세)씨는 “우리도 풍족한 형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픈 아이들 이나 빈곤국가 청소년들보다는 덜 불편하니 그만큼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성금이지만 뜻 깊은 데 쓰여 기분이 좋고 오히려 우리가 더 받아야 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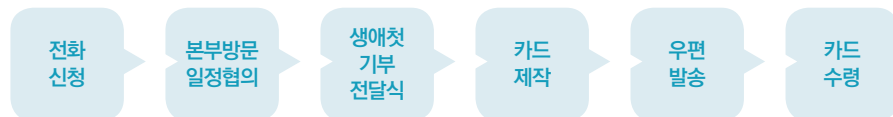
아이 돌반지 기부로 시작한 생애첫기부, 기부 동참 400 가족 돌파.

2008년 4월, 한 아이의 부모가 본부에 찾아와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자녀의 돌반지를 맡기면서 시작된 ‘생애첫기부’는 참여자 수와 성금 규모가 해마다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08년 14건을 시작으로 작년 한 해만 231건의 후원을 받아 총 2억 8천여만 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본부에서 생애첫기부 운동을 담당하는 **정문선** 간사는 “2009년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이후 나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커지면서 기부 진수가 두 배 이상 급증했다”라며, “기부에 참여한 부부들이 개인 블로그나 육아정보 사이트에 기념사진과 소감을 올리면서 입소문을 낸 것도 참여가족 증가에 기여했다.” 고 평가 했습니다.

정 간사는 “최근에는 후보 외에도 인터넷을 통해 기부하는 경우가 많아 가톨릭 신자가 아닌 기부자들도 많이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 간사는 “생애첫기부의 범위가 돌잔치에서 생일, 입학과 졸업 등 아이의 뜻깊은 날로 점차 확대되면서 이 기부 운동이 새로운 기부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생애첫기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참여신청 및 문의 02) 727-2267

● 계좌안내 ● 우리은행 454-005324-13-044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본부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전달식 없이 입금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생명 사랑 나눔 운동’

창립 24주년 맞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과 나눔의 캠페인

6월 10일 성체성혈대축일을 맞아 올해로 창립 24주년을 맞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지난 6월 9일 오전 9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생명나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정신을 받들고자 생명과 나눔의 운동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본부 캠페인과 더불어서 프로라이프연합회가 마련한 ‘생명대행진 2012’ 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희망의 씨앗 - 생명나눔 캠페인’과 ‘자살예방 캠페인’ 2가지 주제로 펼쳐진 이날 행사에서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산하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와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가 함께하였습니다.

‘희망의 씨앗 - 생명나눔 캠페인’ 행사로는 장기기증·조혈모세포기증 희망자 모집,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 포토존이 운영되었고 ‘자살예방 캠페인’ 행사로는 자살예방 서포터즈 ‘생명수호천사’ 모집, 개인 및 유가족 상담 안내와 함께 자살예방센터 사업 홍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가 나눠준 홍보물을 받아본 한다니엘(24)씨는 ‘요즘 날마다 자살관련 뉴스를 접하는 상황에서 누군가 고민을 들어줄 사람만 있거나 해도 위로가 될 것’이라며 자살예방상담전화에 더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왔다는 이수정(27)씨는 “생명 사랑 나눔 운동은 예수님이 만드신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드러서 남을 살리는 운동이잖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운동이 더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래요.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서는 더욱요”라고 전했습니다.

1989년 제44차 성체대회를 통하여 탄생된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지난 24년의 시간 동안 성체성사의 근본정신인 나눔과 섬김, 생명문화 확산에 많은 정성을 기울여왔습니다.

세계 52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제협력사업과 청소년 자살 예방사업, 장기기증 및 조혈모세포기증, 백혈병 및 난치병 환아지원 등의 생명살리기 사업, 국내 사회복지지원 사업을 전개하며 세상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마주보며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국내 최대의 천주교 NGO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동안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이루어진 생명 사랑 나눔 운동은 많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장기기증 신청 사업은 이미 신청자가 11만명을 넘어섰으며, 백혈병, 난치병 어린이 돕기, 장기이식대기자 및 무료개안 지원 사업을 통해 180여명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낙태를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프로라이프연합회가 마련한 <생명대행진>행사에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비롯하여 한마음자살예방센터와 한마음장기기증센터, 천주교, 개신교, 불교 등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뜻을 같이하는 각계 인사들과 일반시민, 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2천여 명의 참석자가 함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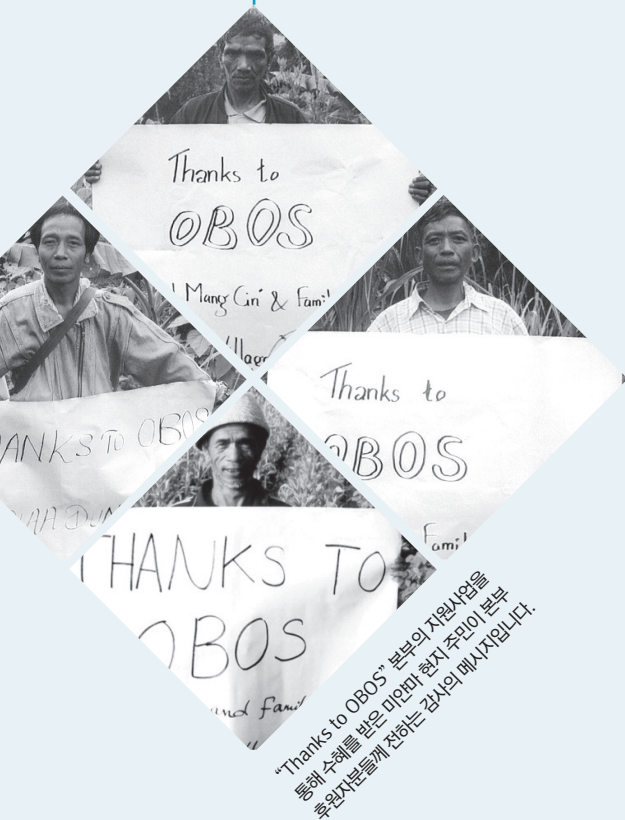
생명수호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해온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앞으로도 비전과 사명을 갖고 성체성사의 정신에 따라 나눔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더욱 노력해나갈 것입니다. 이번 여러 활동들을 통하여 낙태, 자살 등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사라지고 우리나라에 귀중한 생명의식과 사랑 나눔 정신이 자리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Thanks to OBOS

한마음한몸운동본부 (The One Body
One Spirit Movement, OBOS) 미얀마
‘CAD(Country Agency For Rural
Development)’로부터 감사패 전달받아

10

한마음
한몸



지난 5월, 미얀마 ‘CAD(Country Agency For Rural Development)’가 본부로 3년 동안의 ‘기관 활동 보고집’ 과 함께 정성스럽게 에어팩으로 포장한 “감사패”를 보내왔습니다.

미얀마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일하고 있는 현지 NGO단체인 ‘CAD(Country Agency For Rural Development)’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3년간(*2009~2011년) 미얀마의 농부, 여성, 아동 10,650명의 삶의 질과 존엄성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미얀마 녹색혁명과 계단식 농업”을 펼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패에 담아 전해준 것입니다.

CAD가 지원한 3개의 마을 1만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곳(국가적 특수성으로 지역 표기는 비공개)의 지형대부분(전체 면적의 75%)은 고립된 산악 지역으로 문명과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며 힘들게 살아가던 곳이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지원한 재원을 바탕으로 CAD는 이곳에서 “미얀마 녹색혁명과 계단식 농업” 사업을 3년동안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미

안마 현지에 1,600그루의 나무를 심고 관리를 실시하여 가뭄을 방지했고 이를 통해 지역 농민과 그 가족들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농업기술교육을 바탕으로 연 282,786 제곱미터의 계단식·순환식 농업을 전개해 식량을 증대하는 우수한 성과도 낼 수 있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보건과 위생교육, 안전한 식수 접근성 개선, 위생적인 화장실 사용교육, 아동교육과 발달, 지역공동체 소유권 확보 등 전방위적인 생활지원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과 마음들이 모여 이렇게 지구촌 빈국국가와 이웃과 어린이들의 생명을 살리고 미래를 선물하는 놀라운 일이 가능해 진 것입니다. 이 기적을 만들어 주신 신자 및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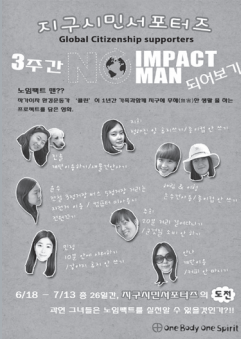
이번 감사패의 주인공은 바로 후원자 여러분입니다. ‘감사패’를 통해 여러분의 나눔이 얼마나 투명하게 사용되었고 전문적으로 실행되었는



1 농업교육을 받고 있는 미얀마 현지 주민들 2 CAD에서 보내 준 '감사패'와 '기관 활동 보고집' 3 유기농법 교육자료 및 샘플

지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앞으로도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낙후돼 있는 미얀마를 포함한 여러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지구촌 빈곤퇴치를 위해 사업의 '전문성'과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책임지며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이 일에 동행해 주시는 후원자님들과 끝까지 즐겁게 달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지구시민서포터즈를 소개합니다

문의 : 국제협력팀 박진솔(agnes0206@gmail.com)

지구시민이란 개인과 국가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사고할 줄 알며, 나와 다른 문화·인종·민족·종교를 존중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 지구적·인류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감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12

한마음
한몸

- **지구시민교육**은 지구시민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더불어 잘 사는,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 빈곤, 인권, 환경, 평화 등 다양한 지구촌 이슈를 통해 지구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입니다.
- **지구시민서포터즈**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국제청년자원활동 ‘띠앗누리’ 청년 네트워크로 청소년 대상의 지구시민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청년의 시각으로 지구촌 이슈를 논의하고 더불어 사는 지구촌을 위해 실천적 활동을 진행하는 모임입니다.

지구시민서포터즈는 2010년, 본부에서 지구시민교육과 함께 시작되어 현재까지 약 20명의 띠앗누리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청소년 대상의 지구시민교육에 자원활동가로 참여하고 빈곤, 인권, 공정무역/여행, 평화, 환경, 젠더 등 다양한 지구촌 이슈와 관련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부터는 각 주제별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법을 고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우리 삶에서 직접 실천하여 작은 것에서부터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슈가 바로 ‘환경’이며 이와 관련하여 노임팩트맨(No Impact Ma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임팩트맨(No Impact Man)은 지구에 무해(無害)한 생활을 하는 프로젝트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풀어낸 영화입니다. 지구시민서포터즈는 이를 함께 시청한 후, 보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각자 자신의 결심을 적고 약 3주간(6/18~7/13)의 기간 동안 실천하기로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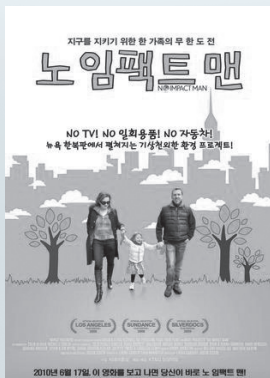
바로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첫 발걸음입니다. 노임팩트맨은 환경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지만, 사람에게에는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노임팩트맨 프로젝트는 지구시민서포터즈 뿐 아니라 누구라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구촌을 위한 노임팩트맨 프로젝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연북중학교 지구시민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지구시민서포터즈
임윤수, 신솔아(중앙)



13

현장
속으로



노임팩트맨 줄거리 (출처: 네이버)

작가이자 환경운동가인 '콜린'은 1년간 가족과 함께 지구에 무해(無害)한 생활을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한다. TV를 버리고 쇼핑을 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1년, 365일 동안 점차 하기 힘든 행동으로 발전되며 가속화된다. 지역에서 나온 농산물만 사먹기, 전기 사용 안 하기,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쓰레기 배출 제로 등 지구를 알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간소화시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와 2살 된 딸은 점차 힘겨워하고 야심차게 시작되었던 프로젝트는 위기를 맞게 되는데... 실수 연발, 의견 충돌! 과연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

제50차 세계성체대회 참여 후기

친교 속에서 성체성사 정신을 되새긴
소중했던 축제를 다녀와서



14

한마음
한몸

글·생명운동팀 김영삼 그레고리오





(상) 폐막미사 후 기념촬영 (사진 우로부터 부분부장 민경일 신부,
필자 김영삼 간사, 조남순 대리)
(좌) 세계성체대회 폐막미사 모습

출발

무척이나 뜨거웠던 6월 7일. 저는 본부를 대표해서 부분부장 신부님, 후원담당 조남순 대리와 함께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리는 제 50차 세계성체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주교회의에서 파견하는 한국대표단(단장 권혁주 주교님 외 72명)과 함께 인천공항에 모였습니다.

아일랜드. 무척이나 먼 나라이고, 어떻게 보면 생소한 느낌마저 드는 나라인 만큼 기대와 설레임을 안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을 마치고 프랑스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다시 2시간 가량을 날아간 뒤에야 우리는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공항에 내릴 수 있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로 유명한 나라인 만큼 공황을 나서자 우리를 반기는 건 역시나 세차게 내리는 비바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블린에서 제 50차 세계성체대회의 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일랜드, 더블린

‘자연 경관이 빼어난 나라’, 영국과의 종교적 갈등이 수세기 동안 지속된 나라,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한’의 정서와 일맥상통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 흥겨운 음악과 흑맥주를 즐기는 친절한 사람들의 나라... 정도가 내가 알고 있는 아일랜드의 전부였습니다.

공식일정들을 따라 다니며 부지런히 보고들은 결과 조금은 아일랜드와 가톨릭교회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교회는 5세기경 패트릭 성인에 의해 복음이 전파된 이후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잉글랜드, 프랑스,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등 가톨릭 역사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천오백년의 역사는 더블린 뿐 아니라 아일랜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성체대회(International Eucharistic Congress)

이번 제 50차 세계성체대회는 그리스도의 성체성혈대축일인 6월 10일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의 로얄더블린 소사이어티(RDS)에서 그 막을 올렸습니다. 한국 대표단을 포함하여 120여 나라에서 약 1만 2,000여 명이 개막미사에 참가하여 이번 성체대회의 주제인 “성체성사-그리스도와 이루는 친교, 우리 서로가 이루는 친교”를 생각하며 성체성사의 신비와 은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래 조직위원회에서는 개막미사에 약 8만

명 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다소 적은 참가자들이 참여한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최근 몇 년 동안 불거졌던 아일랜드 성직자 성추문 등으로 인해 가톨릭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된 아일랜드 교회의 현실이 반영된 듯 보였습니다. 실제로 RDS 밖 곳곳에서 아동성추행 피해자 단체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이는 모습들이 자주 눈에 띄었고, 전 국민의 80%가 가톨릭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미사 참여자 수는 5%도 채 안 된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막미사 역시 이번 세계성체대회를 계기로 이러한 분위기를 쇄신하고, 뉘우치는 기회로 삼아 새로운 복음화를 이룰 새로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쇄신의 종’을 타종하고, ‘치유의 석상’을 쌓은 것으로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블린의 많은 시민들은 대회 참가자들을 친절과 웃음으로 환대해 주었고,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가 되어 친교를 나누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주일간 다양한 주제의 심포지엄과 토론 등의 강의를 진행되었는데 우리는 그 중 교황청 아일랜드 신학원 원장 키아란 오케를 신부님께 ‘한국인을 위한 아일랜드 교회사’라는 주제로 특강을 들으면서 아일랜드 교회와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성 요한 수도회와,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 방문을 통해 역사적인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신앙



으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고 젊은 생을 이국에서 보냈을 많은 분들의 삶도 느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서울대교구 농아선교회 지도신부이자 국제 가톨릭 청각장애인 사목재단 소속의 박민서 베네딕도 신부님은 ‘청각장애인의 교회생활’이라는 주제로 아주 인상적인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신부님은 이날 강연에서 ‘듣는 사람이든, 듣지 못하는 사람이든, 보는 사람이든, 보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한몸입니다. 그것은 모든 나라, 인종, 언어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성체성사 안에서 모두 형제가 되고 한마음한몸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이날 강연은 신부님의 영어 수화와 5개국의 수화 및 영어, 한국어 동시통역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한국대표



세계성체대회 개막미사 모습

단을 비롯한 약 500여명의 각국 참가자들이
신부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 역시도 신부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과연 내 안의 차별에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
었는지... 장애가 있어서, 돈이 없어서, 건강
이 좋지 않아서,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안아주며 살아
가고 있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
습니다. 이렇게 약 8일간의 다양한 세미나와
교육, 행사가 진행되었고 더블린 크로크파크
스타디움에서 폐막 미사를 끝으로 공식 일정
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날 폐막 미사는 세계 135개국에서 약 8만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황청 주교성 장관인
마크 우엘레 추기경님의 주례로 거행되었고,

추기경님은 신앙은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가
장 고귀한 선물이며 이를 잘 가꾸고 키워나가
신앙을 증거하는 삶을 서로 나누며 살아야 한
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서
로의 친교를 다시 한 번 강조하셨습니다.

마치며

대회기간 중에 아일랜드 3대 십자가가 세워
진 글렌달로프와 모네스터보이스, 피닉스
파크를 비롯해 멜라포트 시토회 수도원, 칼
레모어 수도원등 아일랜드 교회의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현장들과 레지오마리에
중앙협의회등 많은 곳들을 순례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들도 가
졌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성체성사의 나눔과
사랑의 정신을 느끼고, 다양한 나라의 사람
들과 친교를 이루며 하나됨을 체험하는 시간
들이었으며,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깨닫
고 은총을 충분히 받은 행복한 여행길이었습
니다.

또 한국 고유의 성체성사운동인 한마음한몸
운동의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또 앞
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질문들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험과 느낀 바를 많은 사람들과 함
께 나누며 이를 바탕으로 본부의 미션에 따
라 나눔을 실천하고 생명을 살리는 보다 나
은 세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나눔가게·나눔기업

가게와 기업에게는 사회공헌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나눔가게·나눔기업

나눔 가게·나눔기업 리스트

- | | |
|----------------------------------|--------------------------------|
| 1호점 서울 수색동 미성슈퍼 | 13호점 분당 서현동 소운정신과의원 |
| 2호점 포항 득량동 손혜어 | 14호점 서울 도림동 레인보우통신 |
| 3호점 서울 반포동 산삼감정협회 | 15호점 서울 성수동 (주)유라스텍 |
| 4호점 서울 성수동 (주)이피코리아 | 16호점 대전 도룡동 (주)명산 |
| 5호점 서울 서초동 이미지넷 | 17호점 대전 만년동 (주)장어대가 |
| 6호점 서울 필운동 (주)계문사 | 18호점 서울 서교동 형광의 낙화, 눈 |
| 7호점 서울 대치동 예담명가 | 19호점 서울 수유동 토마토도시락 |
| 8호점 인천 원창동 참사랑성물 | 20호점 강원 평창읍 평창할인마트 |
| 9호점 서울 신도림동 정유경심리치료연구소 | 21호점 전남 화장동 푸른농장 2호 |
| 10호점 서울 수서동 (주)무원엔비건축사사무소 | 22호점 전남 소라면 푸른농장 중림점 |
| 11호점 수원 권선동 로사리오 | 23호점 서울 신도림동 태영프라자약국 |
| 12호점 서울 여의도동 명동칼국수 | 24호점 충북 청주 분평동 고리의 영어학원 |

18

한마음
한몸

5호점

나눔가게·나눔기업 이미지넷



지난 2009년 디지털 실사 출력소 “이미지넷”을 운영하고 있는 이중혁(도미니코, 서초3동 분당)님이 아들 준수(2008.10.11 일생)의 생애첫기부

전달식을 위해 처음으로 명동에 있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방문했을 때 기념으로 드리는 사진을 보시고는 앞으로 생애첫기부를 실천하는 아기들의 사진액자는 직접 만들어 주시겠다는 따뜻한 기부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4년 동안 한마음한몸운동본부를 통해 생애첫기부에 참여한 부모님들에게 기념으로 드리는 액자를 무료로 제작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지넷”을 운영하고 있는 이중혁님은 재능기부와 함께 아가의 기부 역시 매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나누는 사랑과 이해, 아이를 향한 사랑 그 마음을 이렇게 따뜻하게 표현해 주신 이중혁님의 가정이 더욱 행복해지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9-4 통원B/D 2층
Tel 02-3471-9730 www.imagenet.kr

8호점

나눔가게·나눔기업

8호 참사랑성물, 로사리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정체불명의 상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한 쪽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은 이 상자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상자를 열어보니 엔틱스타일의 액자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이 액자들을 의미있는 곳에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천만 원 상당의 사랑액자를 보내주신 분은 누구였을까요?

이 액자들은 바로 나눔가게·나눔기업 ‘참사랑성물’(8호점) ‘로사리오성물’(11호점)에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참사랑성물 대표 김동호(마르코)님은 가톨릭 성물을 만들고 판매하는 ‘참사랑성물’과 ‘로사리오성물’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사랑성물’과 ‘로사리오’는 가톨릭 성물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로서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스러운 성물을 제조·판매·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사모(성모님을 사랑하는 모임 : 성물을 생산하는 유통업체 모임)를 통해 나눔 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참사랑 성물 / 인천시 서구 가좌1동 146번지 3층
Tel) 010-4331-3653 (대표자 : 김동호 마르코)

19

공간,
나누는
세상

10호점

나눔가게·나눔기업

(주)무원NB건축사사무소



(주)무원NB건축사사무소 김인열 대표님은 “고객들의 성원 덕분에 회사가 발전하고 있어 기업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

천해 보고자 했습니다. 직원들은 100원모으기 운동이나 사랑의 저금통 기부로 또는 장기기증 희망신청으로, 사무실 방문자들에게는 100원모으기 후원신청 홍보, 대표자인 저희는 회사 수익금 일부 기부실천 등으로 나눔의 방법은 다양하고 실천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소의 공동대표님들의 기부 실천을 시작으로 직원분들도 함께 동참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올해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기업으로 선정되면서 사무실에 두는 저금통 크기를 더 크게 키웠습니다. 오늘도 무원NB건축사사무실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나눔기업” 전용저금통이 방문객을 반깁니다. 기부, 어렵지 않아요~~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323호
Tel) 02-3412-5701

생애 첫 기부

아기의 돌잔치·생일·특별한 날 비용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기부한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아기는 아직 모릅니다. 왜 자신의 생일 사진이 남들과 다른지. 하지만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다른 시작을 열어준 부모님이 많이 고맙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20

한마음
한몸

- 김지안 헬레나 (2006.02.27생 父 김경호/ 母 정소영), 5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준영 다니엘 (2009.11.19생 父 김경호/ 母 정소영), 50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강서진 (1994.04.29생 父 강승렬/ 母 문희선),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강서윤 스콜라스티카 (2004.06.25생 父 강승렬/ 母 문희선), 1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김사랑 가브리엘라 (2011.06.09생 父 김주오/ 母 강수연), 69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민수 마리아 (2011.02.26생),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유원선 (2011.04.13생 父 유상진/ 母 박미영),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임지윤 (2011.05.07생 父 임동희/ 母 김보연),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설겸 루키오스 (2011.04.21생 父 설세찬/ 母 박민희),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나현 제나이스 (2007.09.05생 父 김용수/ 母 이승아),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문찬 비오 (2011.04.16생 父 김용수/ 母 이승아), 3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강정우 안토니오 (2010.02.11생 父 강남규/ 母 홍유진),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권경현 (2011.04.19생 父 권오준/ 母 임민정),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도현 사도요한 (2012.01.02생 父 김영순/ 母 백정연),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현우 요셉 (2011.03.18생 父 김기영/ 母 박정숙),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유민정 유스티나 (2002.04.22생 父 유승현/ 母 오유경),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승원 (2011.05.31생 父 김종태/ 母 손장미),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이석민 마티아 (1998.04.27생 父 이종욱/ 母 김미주), 1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김재희 스텔라 (2008.12.20생 父 김세윤/ 母 김선민), 2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윤예진 (2011.12.09생 父 윤희태/ 母 박효진), 5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박송연 소피아 (2011.04.19생 父 박건형/ 母 박현선),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권태성 (2011.05.01생 父 권성희/ 母 김수진),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위서연 (2011.03.28생 父 위충석/ 母 정가영),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오유원 아타나시아 (2011.05.02생 父 오성원/ 母 송미림), 7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김리에 율리아 (2011.05.23생 父 김선준/ 母 장진영),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유영석 (2009.06.12생 祖母 이 마리아), 1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유현석 (2009.06.12생 祖母 이 마리아), 1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정재훈 가브리엘 (2006.12.26생 父 정상운/ 母 백정희), 1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정예원 헬레나 (2009.04.10생 父 정상운/ 母 백정희), 1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정은후 다니엘 (2011.06.28생 父 정상운/ 母 백정희), 1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김새나 (2011.05.27생 父 김영호/ 母 엄진경),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유선 (2012.02.05생 父 이기호/ 母 김영이),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박성빈 (2010.02.10생 父 박동현/ 母 정미영),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황유안 (2011.05.12생 父 황명환/ 母 이지원),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연훈 (2011.05.08생 父 김종호/ 母 이현옥),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신서준 요셉 (2011.06.02생 父 신민석/ 母 조수현), 36만5천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임순빈 안토니오 (1994.06.13생 父 임정훈/ 母 김경화), 3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이준구 가브리엘 (2011.05.31생 父 이정규/ 母 고은지),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정한주 베네딕토 (2010.05.06생 父 정희삼/ 母 이유경),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창배 시몬, 최사준 루시아 (1944.09.21생),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주빈 비오 (2011.05.09생 父 김정원/ 母 정진이),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최해림 스텔라 (2011.04.25생 父 최진석/ 母 정덕기),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지환 라파엘 (2011.05.29생 父 김원태/ 母 유희정),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신혜량 헬레나 (2011.05.27생 父 신석환/ 母 박민우),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구본우 (2012.05.07생 父 구영성/ 母 류지선), 2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강 린 소피아 (2011.05.23생 父 강경태/ 母 이소영),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효임 콜롬바 (2011.01.04생 父 이상훈/ 母 임미화),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권나윤 (2011.12.15생 父 권광호/ 母 김선영),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강미정 에스텔 (2005.07.20생 父 강진원/ 母 신인규),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강민서 안젤라 (2007.05.04생 父 강진원/ 母 신인규),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남윤 (2011.05.27생 父 김**/ 母 신**),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박선유 소피아 (2011.05.27생 父 박성훈/ 母 민선정),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장수아 (2011.06.01생 父 장진성/ 母 이정화),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서정현 요안나 (2008.02.16생 父 서원희/ 母 황은주), 10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이유하 프란치스코 (2012.02.21생 父 이태양/ 母 김지인), 2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이은성 라파엘 (2011.04.29생 父 이성수/ 母 신현진),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최선우 막시밀리안 마리아 콜베 (2011.07.10생 父 최재혁/ 母 현예진), 36만5천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왕준범 (2011.06.26생 父 왕성민/ 母 김은미),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정승주 리노 (2011.06.17생 父 정상래/ 母 박효진),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승주 (2011.07.20생 父 이용광/ 母 정지선),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제다경 (2011.06.06생 父 제현국/ 母 김순이),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홍은진 마리아 (2010.06.15생 父 홍원표/ 母 박선영), 30만원(지구촌 빈곤 청소년 지원)
- 고도원 (2011.06.24생 父 고성호/ 母 장숙현),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황서미 (2011.07.24생 父 황인성/ 母 한채령),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신윤성 (2012.03.14생 父 신명수/ 母 허경화),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민하 (2011.05.09생 父 김홍곤/ 母 백지혜),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생애첫기부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67

계좌안내 우리은행 454-005324-13-044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OBOS NEWS

22

한마음
한몸

2011 민간단체해외봉사단 귀국보고회



4/3(화) 환경재단 페이스카슨홀에서 2011 민간단체해외봉사단 귀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1년동안 캄보디아 반티 프리업 장애인기술학교에서 사회복지/행정 및 공예/디자이너로 활동한 김소령, 유진희 단원의 생생한 현장이야기와 더불어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청년자원활동 피앗누리 14기 파견

본부의 국제청년자원활동 피앗누리 14기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오리엔테이션 및 4차례의 배움터를 마치고 지난 7/25(수) 몽골로 출발하였습니다. 14박15일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무사히 건강하게 돌아오길 바랍니다.

‘희망의 씨앗 생명나눔 걷기대회’ 참가



보건복지부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주관하는 ‘제1회 희망의 씨앗 생명나

눔 걷기대회’가 지난 6월 16일 상암월드컵공원 평화의 광장 하늘공원 일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본부도 이번 행사에 함께 참여하여 생명나눔 및 장기기증에 대한 스토리 사진전을 펼쳤으며, 생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참가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한국장기기증원 장기기증 포럼 패널 참가

지난 6/22(금)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KODA 글로벌 포럼 2012’에 정현수 소장이 패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독립장기구득기관으로 출범한 한국장기기증원의 지난 1년을 돌아보고 장기이식의 새로운 비전과 장기기증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 시립 수서 청소년센터 “청소년 페스티벌” 참가

5/19(토)~20(일) 2일간 서울 시립 수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주최한 “청소년 페스티벌”에 참여하여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페스티벌에 참여한 학생들은 캠페인 부스에서 기념촬영도 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살예방센터 사무실 이전 축하식

7/6(금)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 위치해 있던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가 서울 중구 저동1가 2-3번지 평화방송 별관 2층으로 확장이전 하였습니다. 사무실 이전 축하식에는 서울대교구 사회사목담당 교구장 대리인 김용태 신부와 직원 등이 함께하여 센터의 앞날을 축복해주었습니다. ☎ 02)318-3079



한마음한몸 장기기증센터 사무실 이전

고 김수환 추기경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2009년 4월에 세워진 상설운영기관 한마음한몸 장기기증센터가 7/9(월)부로 가톨릭회관 413호에서 207-1호로 이전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 02)3789-3488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다. 감동의 터치다

윤. 영화 ‘5퀴터’ 교통사고로 인해 뇌사상태에 빠져 장기를 5명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난 루크.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삶과 그 속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어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5퀴터’가 8월 9일 개봉합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영화사 (주)아펙스엔터테인먼트와 연대하여 장기기증희망등록증을 소지하신 분들께 티켓 구매시 1천원을 현장에서 할인해드리오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100원, 큰 나눔의 씨앗입니다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

100원이라는 작은 씨앗으로 사랑과 나눔이라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절취선을 따라 올려주세요

생명나눔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가장 쉬운 방법

I.Do 희망의 씨앗 심기
장기기증
제가 하겠습니다



생명나눔은 진행중!

<http://www.obos3042.or.kr>

이제 '장기기증' 희망신청은 이곳에서 하세요.

보내는 사람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2.3.9 ~ 2014.3.8

서울중앙우체국
승인4151호

접는선

이 부분은 반으로 접으세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207-1호

tel 02.774.3488 fax 02.776.7879

www.obos.or.kr

1 0 0 - 8 0 9